

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**로마서 1~3장 (성구 익히기, 로마서 1:16)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.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준다. (30~35분)**

**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**

“인간이 배가 고파야만 비로소 음식을 갈구하듯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.”

“어떠한 사람도 [아담과 이브의] ‘타락의 교리’와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, 그리고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.”(에즈라 태프트 벤슨, Conference Report, 1987년 4월, 106쪽; 성도의 빛, 1987년 7월호, 95쪽)

• 사람들이 그리스도 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?

• 그 이유는 무엇인가?

•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구주에 관한 우리의 느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?

• 세상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타락하였으며 또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, 세상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?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?

(물문경이 어떻게 이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물문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, **앨마서 34:9를 찾아 읽는다.**)

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타락의 교리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우려 하였다. **로마서 1장 14~17절을 읽는다.**

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성경(조셉 스미스역 성경)에는 로마서 1장 17절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.

“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”

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”(조셉 스미스 역 성경, 로마서 1:16~17)

“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”

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”(로마서 1:16~17)

•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?

• 왜 그가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?

로마서 1~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.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며, 또 이 권능(또는 은혜)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가르쳤다. **(로마서 3:24~31을 읽는다.)**

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참조 성구를 찾아본다.

•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주는 왜 필요한가? (바울은 모든 이들이 행함으로 심판 받을 것이며,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였다. **로마서 2:1~16 참조; 또한 니파이전서 17:35 참조**)

•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구주는 필요한가? (바울은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. 누구도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, 모든 이는 율법으로 정죄 받는다. **로마서 2:16~3:23 참조**)

• 오늘날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단지 교회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있다.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?

• 경전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? (**마태복음 7:21 참조**)

**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.**

“교회의 사명은 회원들이 승영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원리와 프로그램과 신권을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성공은 개인이든 교회 전체로나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. ...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이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고, 교회 프로그램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족 활동을 지원해야지 결코 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” (스펜서 더블류 김볼, “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”, 성도의 빛, 1978년 10월 호, 157쪽)

• ‘교회 프로그램’과 ‘가족활동 및 복음실천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?

• 바로 위 질문의 답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왜 그것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아래에 간단히 적어본다.